



최성민_한겨레 여행전문기자

요즘 흔히 일상탈출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 일상을 왜 탈출하는가. 탈출해야 할 만큼 우리의 일상이 그만큼 부분하다는 말이다. 지금 우리의 도시화율이 80퍼센트에 이른다고 한다. 전 국민의 80퍼센트가 도시에 모여 산다는 것이다. 좁디 좁은 땅에서 5,000만 명이 흠어져 살아도 버클버클일 텐데 도시에 밀집하여 살다니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사람과 사람끼리 부대끼는 일상인가 알 수 있다. 사람끼리 부대끼는 것은 우리의 일상이 인위의 높에 갇혀 있음을 말한다. 여기서 곧 일상탈출은 도시탈출이고 그것은 인위적인 것으로부터의 탈출, 즉 자연을 갈구해 찾아가는 뜻이다.

여행을 일상탈출이라고 한다. 여기서 여행은 분명히 관광과 다른 개념임을 알 수 있다. 관광이라고 할 때는 일상이 그리 파분한 것은 아니라는 뜻이 함축돼 있다. 일상도 즐겁지만 일상으로부터 약간의 변화를 추구해 일상 밖의 다른 구경거리를 찾아나서는 것이 관광이라고나 할까? 그러나 여행은 애초에 일단 떠난다는 데 더 중점을 두고 있다.

나는 위에서 말했듯이 현대인의 여행은 인위의 일상(도시)을 떠나 자연을 찾아가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도시화율이 80퍼센트에 이른 데다 땅넓이에 비해 인구밀도가 턱없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다. 따라서 여행은 인위적인, 또는 문명적인 요소가 적음, 자연의 자연성이 두텁게 남아 있는 곳으로 가는 게 도시인들에게는 좋다고 본다. 그런 여행은 어디에 가서 무엇을 구경하는 데 중점을 두는 관광과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 요즘 무슨 문화제나 별난 구경거리는 웬만하면 다 텔레비전을 통해서 훨씬 상세히 만날 수 있다.

자연으로 가는 여행을 나는 '자연주의 여행'이라 부른다. 자연주의 여행에서 자연은 하나의 주체다. 여행객은 객체에 불과하다. 따라서 여행객은 자

여행은 인위의 일상을 떠나 자연을 찾아가는 것

연 속에서 주인의 집에 들어선 손님처럼 겸허해야 한다. 주객을 혼동해서 여행객이 주인처럼 자연을 헤집고 다녀서는 안 된다. 말하자면 깃벌체힘이니니 고기잡기 체힘이니 해서 자연을 만지기나 학대를 가하는 것을 자연여행이라 한다면 그것은 오직 '폭력 학습여행'이라고나 해야 할 것이다. 자연주의 여행객은 자신이 자연 속에서 하나의 작은 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자연의 일원으로서 자연의 존재원리에 귀를 기울여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자연주의 여행은 자연으로 가서 자연을 해석하고 자연과 교감해 봄으로써 자연에 가까이 가고자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나

사진제공 유연태





의 정체성을 알 수 있고 도시의 일상이 떠분한 원인을 진단할 수 있게 됨으로써 도시의 일상에 지친 심신을 조금이나마 재충전하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게 된다. 살아 있는 자연 속에 흠뻑 담귀졌던 심신은 어느 정도 자연의 기(에너지)를 전이받아 왔다고 볼 수 있다. 일상이 떠분할 때 참선하는 기분으로 눈을 감고 여행지에서 강하게 와 닿았던 자연의 인상을 한 대목 간절히 그려보라. 그러면 어느 정도 그 장면에 가까이 가 있는 듯한 '고감의 잔영'을 일깨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당신의 심신은 더욱 자연에 대한 그리움이 간절해지면서 세포들이 자연의 활력을 향해 문을 열 것이다.

여행수지 후자국들을 보라. 프랑스나 이집트 등 고대 문화재를 상품으로 삼는 일부 나라를 제외하고 요즘 잘 나가는 자연체험여행을 내세우는 여행진민국들은 모두 친혜의 자연 그 자체가 외국 관광객(여행객)들을 부르는 자연이다. 그들은 조상대대로 자연을 귀중한 자산으로 기르고 보존해 왔다. 그들이 우리처럼 오도된 자연체험을 내세워 물려드는 외래객들에게 갯벌에 들어 가서 온갖 게와 낙지를 잡게 하는 등의 자연 부수기를 여행상품으로 팔아먹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의 예를 보자. 강원도 양양군은 해마다 11월 남대천 연어축제를 연다. 알을 낳으려고 먼 바다를 건너 고향에 돌아오는 연어들 을 그물로 미리 잡아 일주일 정도 가둬두어 힘을 빼 뒤 참가자들에게 '빨리 잡기'와 '맨손으로 잡기' 시합을 하게 하는 것이다. 그 산모양어들을 맨손으로 잡아 들로 머리를 쳐서 붙에 그을려 먹고... 이런 것을 어디 관광이라 할 수 있을까. 더구나 자연체험여행이라 할 수 있을까. 전남 진도 화동리 앞바다의 이른바 '모세의 기적'이 초기에 외국인들의 관심까지 끌다가 시들해진 이유도 그렇다. 2.3일 물이 갈라지는 동안 하루 10여 만 명의 관광객들이 호미를 들고 갈라진 대목을 지나가면서 낙지와 조개 온갖 갯것을 이집듯이 뒤져 잡아낸다. 그 길은 곧 시궁창이 되어버린다.

나는 1999년 9월 말 남북정상회담 결과의 하나인 남북백두한라교차관

광단의 취재단으로 평양을 거쳐 백두산에 간 적이 있다. 분단 50년 만에 처음 북녘땅으로 가는 백두산 여정이라 했다. 그때 본 북녘땅은 전체가 하나의 자연여행지였다. 백두산 백두고원(개마고원)의 광활함과 곰과 사슴들이 노니는 숲, 20분 이상을 행들을 끼지 않고 달릴 수 있는 감무도로의 이깔나무 단풍길, 야생화들이 만발한 초원, 그리고 바다처럼 넓고 푸른 대흥단 감자밭... 차를 달리면서 이런 것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서울 한가운데서 가슴에 쌓인 매연과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씻겨지는 것 같았다. 북녘에서는 일찍이 묘향산에 풍부한 금광을 개발하자는 주장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 김일성 주석이 "묘향산의 자연을 잘 보존하면 나중에 금광을 훨씬 넘어서는 이득을 보게 될 것"이라며 만류했다고 한다. 지금은 북한 경제가 어렵지만 금강간 칠보산 묘향산 백두산 등 자연이 잘 보존된 명산 서너 개만 외부에 개방하면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하니, 자연이 서너 번 이상 모두 기형적인 성형수술을 당한 남녘 사람들로서는 뒤늦게나마 이 땅 한쪽 자연의 귀중함이라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자연은 인간의 고향이자 따뜻한 어머니 품과도 같은 곳이다. 도시의 인 위에 상처입은 심신을 치료하는 일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루소의 말처럼 영원히 자연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살아생전엔 우선 여행만이라도 무위의 자연으로 가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행이나 매스컴은 아직도 관광거리, 볼거리, 먹을거리(별미) 등만을 소개하는 물지각을 보이고 있다. 우리의 여행문화 개혁을 위해서는 자연의 진면목과 우리 삶의 관계를 잘 알려주는, 자연의 순리를 인간에게 잘 해석해 주는 여행서를 보는 게 좋다. 예컨대 가을철 단풍이나 여새꽃 명소만으로 물려갈 필요는 없다. 그런 별미여행으로 '모세의 기적'이 거덜났고 정동진이 모텔촌이 되고 말았다. 빨강고노랑고 양증맞고 새콤한 산야의 토종열매 하나를 찾아서라도 호젓한 여정을 잡아보는 지혜가 우리의 일상을 살찌게 할 것이다. **☞**

자연주의 여행객은 자신이 자연 속에서 하나의 작은 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자연의 일원으로서 자연의 존재원리에 귀를 기울여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